

Cover Story
북녘 장애인체육단
지체 장애인
이철송 탁구 선수.

2015 Vol. 4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We share God's Love with the disabled and orphans in North.
북녘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www.greentreekorea.org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는 통일부 산하의 NGO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북녘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연 6회 이상, 북녘장애인시설 12개시설에 직접 방북하여 모니터링 및 시설방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녘 전역 43개의 고아원도 복측과 합의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장애인, 고아들을 위한 인도적지원사업과 남북,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과 통일세대 양성이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적 아래 온 민족, 교회들, 성도들의 지원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www.greentreeint.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eentreekorea



카카오톡 ID
greentreekorea

후원 문의 및 신청 02-3482-2000

후원계좌
760737-04-007453
국민은행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Cover Story



북녘 장애인체육단 이철송 탁구선수. 이철송 선수는 지체 장애인으로 2013년 말레이시아 청소년 장애인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단식 은메달, 복식 동메달을 땀습니다.

OUR VISION

우리의 형제인 북녘 동포들과 사랑을 나누고

Share Love with our brothers

우리의 자원인 청년 인재들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고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s

우리의 힘인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힘을 합하여

Integrate with Korean Diaspora

우리의 소망인 뉴코리아를 준비한다.

Create New Korea

국제푸른나무 2015 소식지

발행처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발행인 박수광
발행일 2015년 10월 30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303호



CONTENTS

- 04 후원자님께 드리는 감사 인사
- 06 국제푸른나무 민족화해상 시상현장
- 08 국제푸른나무 친선대사·홍보아티스트 위촉식
- 10 통일박람회 참여현장
- 12 북녘소식 : 장애인 지원
- 15 신영순 공동대표의 북녘 현장 이야기
- 16 북녘소식 : 어린이 지원
- 18 말레이시아 청소년 해외봉사단 후기
- 22 캄보디아 전력마을 아동복지센터 건립
- 24 'Save Nepal' 긴급구호 스토리
- 27 칼럼 : 이정임 권사
- 28 해외 본부 이야기 & 지역 본부 이야기
- 29 사업 본부 이야기
- 30 후원자와의 Talk : 라온윌 합창단
- 33 후원자의 글: 박현정, 정주호
- 34 찾아가는 통일교육
- 38 교회와 함께하는 국제푸른나무 : 대구성동교회
- 40 사업보고
- 42 후원자 명단
- 44 캠페인 : 베들레헴 플랜
- 46 후원신청서
- 47 캠페인 : +5°C의 사랑 내복 보내기



〈해외후원계좌〉

[USA]

Green Tree Charity Foundation USA

*Bank of America
Account No. 3250-0868-6651
Swift Code : BOFAUS3N
Southern California Routing # 026009593

*Check to Green Tree Charity Foundation
Address : Joy Fellowship Church PO, Box
96 Tujunga, Ca 91043
E-mail : pastordpark@gmail.com
Phone : 818-862-1031

[CANADA]

Poo-Reun-Na-Moo Charity Foundation

*Branch No. 92760
Account No. 09425233294
Insitution No. 004
Swift Code : TDOMCATTOR
E-mail : desk@greentreekorea.org

큰 하나(통일)를 위한 작은 하나(후원자님)에 대한 감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제푸른나무의 후원자님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비록 짧은 거리이지만 고국에서 한 발짝 떨어진 이국땅에서 더 객관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또 다시 치열한 열강의 정치 외교의 격전지가 된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민족이 살길은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일본에서 TV화면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해 나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 보았습니다. 저는 국제푸른나무가 지금까지 힘써 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이야말로 꼭 막힌 남북관계의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운동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년에는 남북한 장애인들 간의 문화예술체육부문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북한의 장애인들과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통일운동을 위하여 국제푸른나무는 더욱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일들을 시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제푸른나무의 가족들과 후원자 여러분! 지금까지 힘써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국제푸른나무가 자라나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푸른나무 이사장
곽수광 목사

나눔은 남과 북이 용서와 화해로 가는 지름길

제 아내와 저는 국제푸른나무 후원 가족들이 되어 주시고 동역자로 함께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이 한반도에 사랑의 나눔과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들과 국제푸른나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국제푸른나무가 제 아버지(프랜시스 킨슬러)께서 1928년 평양에 오셔서 시작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선친께서는 평양신학교, 송실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성경구락부를 열어 교육 기회가 없었던 불우 청소년들을 도우셨습니다. 또한, 저는 1934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이해하고 북녘의 동포들과 나눔을 통해 하나될 뿐만 아니라, 남북장애인체육교류와 장애인들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한과 해외 동포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남과 북 38선을 넘어서 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남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제푸른나무 고문
아더 킨슬러 목사





푸른나무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 내다

국제푸른나무 민족화해상 시상현장



글 : 김준 사무총장

2014년 12월 어느 날 대한민국 민화협 사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년 남북간의 화합에 공헌한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푸른나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가 세워진 지 겨우 4년 남짓,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선물로는 부담스러운 정도였으니까요.

“받아도 되나? 더 열심히 일한 단체들이 준비한데,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단체 사역자들과 직원들이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남북의 화합을 위해 헌신한 선배 단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사실 민족화해상은 역대로,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김문수 전(前) 경기도지사 등이 수상했던 전적이 있던 귀한 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세종로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홍사덕 의원께서 초청해주시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직원들은 분주히 [국제푸른나무]직원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정도, 약 100여분 정도가 모인 가운데 식은 시작되었습니다. 민화협 처장님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향신문사 송영승 대표이사께서 축하하시고, 민화협 홍사덕 상임대표께서 시상을 해 주셨습니다.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 어린이 어깨동무, 기아대책, 굿피플 등 북민협 단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고 영예로운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 5세를 향해 가는 국제푸른나무, 지금도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사장님의 말씀을 따라 남북이 하나되는 그 날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힘주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해 봅니다. 민화협 시상식 내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견으로 북녘 땅을 저버린다면 그곳에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한분만 계실 것이다. 그레 능력 없지만 그 예수님 옆에 만이라도 있어 드리자.’





북녘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한마음

국제푸른나무 친선대사·홍보아티스트 위촉식

청록의 푸르름이 온세상에 만발한 6월 22일! 아름다리 푸른나무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친선대사와 홍보아티스트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친선대사로는 영화배우 정준호님, 아나운서 황현주님이, 홍보아티스트에는 CCM 가수 최덕신님, 채한성님, 나경화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날 객수광 이사장님은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우리 또한 한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때 북한을 품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환영사를 마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많은 내·외빈들과 기자분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위촉된 친선대사와 홍보아티스트 분들의 귀한 모듬을 통해 앞으로 국제푸른나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더욱 풍성해지고 나아가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로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연예인을 친선대사로 세운 것은 앞으로 국제푸른나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잘 알려지도록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북녘땅의 고아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제푸른나무 재단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과업인 통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국제푸른나무의 홍보아티스트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 통일을 갈망하며 북녘땅의 장애아와 고아들의 삶에 기쁨이 더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축제

2015 제 1회

통일박람회 참여현장



지난 5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광화문 앞 광
 장 및 시청 앞에서 통일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2015년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국제푸른나무가 참가하였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배정 받은 부스를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
 서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푸른나무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
 들과 북녘에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보여 드리고 국제푸른나무 소개지, 소식지, 브로셔를 준비
 하여 국제푸른나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게 했습니
 다. 또한 현 북녘 상황이나, 북녘에 있는 장애인들과 어린
 이들에 대한 설명과, 북한과자인 참깨과자 시식과 함께 진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에는 30가지의 뜻은 같지만 표기가 다른 북
 의 단어와 남한의 단어를 서로 잇고 맞추는 게임과 한반도
 의 지도를 도 단위로 나눈 퍼즐 게임 코너를 준비하였습니
 다. 많이 알려져 있는 ‘도넛-가락지빵’, ‘아이스크림-얼음
 보숭이’ 부터 해서 무릎을 탁치게 하는 ‘수화-손말’, ‘혈
 액형-피형’, ‘건망증-잊음증’, 같은 순우리말식 표현도 있
 었으며, ‘대중가요-군중가요’, ‘초등학교-인민학교’ 같이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 퍼즐 중 강원도는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특
 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에는 북녘에서 직접가지고 온 북측 물건들
 을 전시하였습니다. 꿩깃털 부채, 어린이 동화책, 만화책,
 우표, 북녘 화폐, 물티슈, 치약, 비누, 과자, 사탕, 화장품
 등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부스 입구에는
 북녘의 여자아이용 한복을 옷걸이에 걸어 전시하고, 어린
 이들이 입어보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실사이즈로 인쇄된 북녘 아이들 사진과 같이 사
 진을 찍는 포토존은 만들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들과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늦봄임에도 날이 더웠지만 총 6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서
 서 국제푸른나무가 준비했던 모든 코스들을 체험 완료해
 주셨습니다. 북녘 물품을 판매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통일과 북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
 어하셨던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 분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북녘소식

장애인 지원



가자! 2016 리우 올림픽으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최초 참가한 것에 이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ان게임에 북측대표단 선수들을 참가 유치 시키며 조선 장애자체육협회 선수 3명이 참가하여 임주영 수영선수가 은메달 2개를, 탁구복식과 단식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북측 장애인 체육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15 방북 시에 국제 장애인체육대회에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도록 리분희 서기장과 협력하여 2016년 브라질 리우 장애인 올림픽 참가를 위해 중국 심양 전지훈련장에서 장애인 선수들은 맹훈련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 치러지는 2015년 11월 태국 예선전 참가를 지원하

는 등 지속적으로 예선전 참가를 통해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꿈을 꾸는 북녘 장애인예술단의 아름다운 도전

조선장애인예술협회에는 맹아연주단과 농아무용단 학생들이 있으며,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 무용 공연을 연습하고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술단은 국내 행사에서 공연무대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올해에는 처음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음악 등을 맹아 연주단, 지체장애인들이 노래와 연주를 하고 농아무용단은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들이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감동의 현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예술단이 세계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행복한 삶을 꿈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곳에서도 꿈은 자랍니다

평양에 위치한 조선 장애인협회 탁구훈련장에서도 사고로 손과 다리를 잃은 10세 정도의 어린 꿈나무들이 탁구선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들이 이제는 많은 불우한 어린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매일 꿈을 키워 나가며 미래의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장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은 평양에 위치하고 2012년 3월 29일부터 조선장애자보호현맹 중앙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2013년부터 방문하고 있는 이곳에는 정신지체, 청각장애, 다운증후군, 자폐증 어린이들이 특수교육과 치료들을 받고 있고, 17명의 특수교육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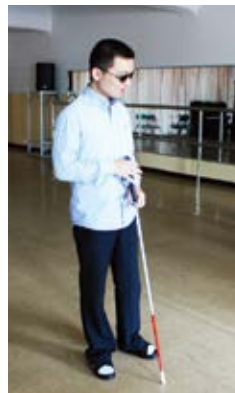
2015년 8월 방북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순수하고 밝은 모습으로 거리낌없이 다가와 주었고 홀라후프를 돌리거나 북을 치는 놀이감을 이용하여 신체, 지능발달을 위한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최초로 세워진 특수교육장인 만큼 장애아동들의 잠재력 향상과 조기회복을 위해 힘써나가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통일미래의 특수교육의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 지팡이, 보청기 전달

국제푸른나무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준비한 보청기, 맹인지팡이를 각각 200개씩 구입하여 2015년 5월 2차 방북시에 조장련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단원들에게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는 장애인보장기구를 직접 전달하였는데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손길을 통해 누구보다 기뻐하는 장애인예술단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측에 있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영순 (Sue Kinsler)

국제푸른나무 공동대표, 민족장애인원아지원협력사무소 소장

신영순 공동대표의 북녘 현장 이야기

민족분단 70년의 긴 고통의 세월은 아직도 한반도 안에 분단의 아픔이라는 상처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행히 10월 2차리에 걸쳐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 교류가 점차 개선되어 가는 듯합니다. 하루속히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제푸른나무는 그 동안 국내외 후원자님의 기도와 아낌 없는 후원에 힘입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랑의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북녘에 장애인을 돕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진심 어린 신뢰관계 속에서 장애인 특수교육 룡 야학교들과 맹인학교, 장애어린이회복중심, 장애인 예술, 체육, 직업 재활분야에서 놀라운 발전과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녘의 장애인 예술단은 이제는 세계를 향해 한발 더 발돋움하여 올 2월에 룡야 무용단과 맹인 예술단, 지체장애인 예술단이 영국과 프랑스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조선장애자원아기금 베이징 사무소 심양 지부 사무소가 개소되어 리분희 소장이 부임하였습니다.

리분희 소장은 북측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발전과 전지훈

련 및 해외 경기지원을 위해 장애인 아들과 함께 부임하여 체육 훈련장도 마련하였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며 해외 동포들과의 협력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년 브라질 리우 장애인 올림픽 참가를 위해 북녘 장애인 탁구 선수 전지현과 이철송은 대만 예선전에 참가하여 리우 장애인 올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되었고 북측 양궁 장애인 선수 2명도 11월에 있을 태국 예선전 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 70년의 응어리가 앞으로 남북 장애인 예술과 체육 교류를 통해 감동과 희열의 순간으로 풀려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리던 <남 북장애인 친선합동공연>과 <남 북장애인친선탁구경기>, <민족통일 복지세미나>를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민족평화와 화해를 염원하고 있는 남한과 해외 후원자님들과 함께 미래의 희망찬 통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북녘소식 어린이 지원

2015 북녘 어린이 지원소식

• 북녘에서는 2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특수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노트, 연필, 지우개 등의 3,750여개 수량의 학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후원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손길로 2,670명이 입을 수 있는 아동내복과 학생운동복 원단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북한 내 피복공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겨울에 좀 더 따뜻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야 할 북녘 아이들을 위해 매년 내복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황해북도 육아원 분원의 변화

황해북도 육아원 분원은 사리원시에 위치해 있으며 5세 미만의 330여명의 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 사리원 애육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곳은 2003년 6월부터 신영순 (Sue Kinsler) 선교사가 식량과 의약품, 의류, 가전제품, 생필품 등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처음 방문하였을 때와 비교해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남북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국제푸른나무 후원단체 미주 G&H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생활개선과 놀이시설, 물자 이동수단인 트럭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 하나씩 갖추어 나가면서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 되어가고 무엇보다 아이들 건강이 몰라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니 아이들 방 침대들도

목재로 바뀌어져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더 편리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곳을 방문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 원아들이 방북단을 만나면 거리낌없이 다가와 품에 안기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환영인사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뿌듯한 순간이며 우리가 한민족임을 잊지 않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2014년 협력지원으로 생겨난 동물사육장과 양여장, 채소온실도 모두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돼지, 토끼, 닭, 거위, 칠면조 등 여러 가축들을 기르는 종합축사로서 제법 규모를 갖추어 가고 채소온실은 아직은 텃밭수준이지만 어린 원아들의 다양한 먹거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축지원과 채소온실은 어린 원아들이 단백질 섭취를 통한 영양 증진과 정서적 안정,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말레이시아 청소년 해외봉사단 후기

‘꿈과 사람속으로’

기대 반 설렘 반, 출국!

18명의 청소년들이 한 팀으로 만나다

국제푸른나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2015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공모사업을 주관하였습니다. 4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훌륭한 인재였지만 서류와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18명의 청소년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저마다 꿈과 열정을 가진 소중한 청소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11일을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서먹했던 사전모임을 마치고 9월 5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미 서로 충분히 친해진 듯 기대와 설렘만 가득해보였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재능발휘의 연속

말레이시아에서의 첫 활동은 현지 대학교와 공동 진행한 문화교류활동이었습니다. 단원들은 총 4팀으로 나누어 태권무, 트로트, K-POP 춤, 팝핀을 현지 대학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반응은 엄청 낮았습니다. 아이돌 가수도 울고 갈만한 환호성과 박수 갈채에 봉사단도 신이 나서 더 즐겁게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황리에 준비한 것들을 마치고 단원들과 현지 대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다가가 사진 찍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 단원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현지 대학교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봉사활동 목적지는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한 외딴 마을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주민의 자녀들이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봉사단의 재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준비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였고, 말레이어 단 몇 문장만으로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 노래, 미술 등 여러 가지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나중에는 지친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별모임을 잘 인도해준 조장들과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를 용감하게 나누어준 단원들이 대견했습니다. 또한 단원 아이들 모두 저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다

처음에는 10일 가까이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일정을 단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했습니다. 단체생활을 위해 남을 배려하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나이, 출신 지역 모두 천차만별인데다가 만났지 이제 겨우 일주일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화기애애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매일 저녁마다 가졌던 조별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 단원들은 저마다의 삶과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9월 15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수 없으니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나봅니다. 출국 전,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 아이들이 친해진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해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이 소중한 것을 배우고 얻고 간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귀한 봉사단이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멋진 리더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지원 단원 19세

봉사기간 동안 단원들, 선생님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봉사하면서 쌓았던 추억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모두 다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모두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언제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나도 내 꿈을 소개하고 단원들의 꿈도 알게 되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 생겼다는 것에도 너무 기쁘다.

노승혜 단원 17세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항상 활짝 웃으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보며 나를 반성하게 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봉사 기간 내내 아이들과 닮아가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에 있는 지금 나는 전과는 달리 투정도 줄고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 할 줄 아는 항상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되었다.

이민우 단원 20세

조원들에게 나의 가장 슬펐던 순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몇 사람들만 아는 내 이야기를 만난 지 7일밖에 안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친구들을 믿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밝아 보이는 친구들에게도 가슴 아픈 사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이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기존 건물 모습

캄보디아 찐력마을 아동복지센터 건립

국제푸른나무는 전국장로회연합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빈민밀집지역인 찐력마을에 5월부터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완공을 앞두고 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찐력마을에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캄보디아 본부 박승국 대표와 가족

이 곳은 문맹율이 높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 후 자녀를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가정생활이 피폐해 지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동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 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공사과정 중에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지반이 약하고, 1년 중에 4개월이 물에 잠기는 지역이므로
기둥을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일반 평지하고는 많은 차이
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건물이 물에 잠김으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부실해 지고 위험한 상태인데, 도로와 기존 건물을
연결함으로 위험한 기존 건물을 보강 할 수 있습니다. 보
통 4월부터 우기라 8월에는 물이 차서 기초 공사와 기둥을
세우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매년 오는 비와 소
나기에도 불구하고, 기초 공사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바닥공사

아동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학대 받는 아동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밥퍼 사역을(사랑의 저녁 나누기) 통하
여 원활하게 아이들에게 급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기별로 1004 쌀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에
게 사랑의 쌀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배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방학후 교실 활동으로 한글교실, 영어
교실, 피아노 교육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적공사



지붕공사



페인트 칠



4월 25일

네팔에서 진도 7.9의 강진 발생! 피해입은 주민 800만명, 식량부족을 겪는 주민 350만명, 이재민 280만명, 집을 잃은 아동 28만명, 사망자 7,500여명, 도로가 끊기고 건물 이 무너지는 등, 많은 이웃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네팔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직접 네팔에 갈 수 없기에 현지에 지부가 있는 다일 공동체와 함께 긴급 구호 스타트!!

5월 4일

네팔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일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네팔에 갈 수 없는 국제푸른나무는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Save Nepal' 모금을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지원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산 예수교회(담임 조광연목사) 주일오후 어린이주일 감사예배에서 네팔 선교헌금 327,210원을 후원했습니다.

24 - 25



5월 15일 : 이노센트 [Innocent]

강희갑 네팔 사진 전시회 이노센트 [Innocent]. 평창동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강희갑 사진작가님과 함께 네팔의 이재민들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셨습니다. 정지훈 MC의 진행으로 시작해, 강희갑 사진작가님의 인사와 네팔의 얽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곳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시고 슬픔으로 인해 잠시 연설을 쉬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희갑 사진작가, 안내를 도와주신 SOS 어린이마을, 진행을 맡아주신 정지훈 MC와 김청 마술사, 김학진 목사님, E.R., 국제푸른나무 홍보아티스트, 나경화 전도사, 채한성 음악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16일 : 대전 휴지

저녁 7시 대전 공연문화놀이터 휴지에서 네팔 지진피해 후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를 위해 CCM가수 김학진 목사님, 채한성 음악 감독님, ER, 나경화 전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관객들은 네팔이 하루빨리 재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 후원을 하였습니다.



5월 17일 : 구리 새빛중앙교회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찬양으로 기부하는 김학진 목사님, 가수 라엘, 혼성그룹 ER, 국악찬양 나경화 전도사, 채한성 음악감독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새빛중앙교회 성도들은 후원콘서트를 통해 찬양으로 은혜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5월 31일 : The Cross Church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찬양으로 헌신하는 조은영 가수, 혼성그룹 ER, 국악찬양 나경화 전도사, 채한성 음악감독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크로스처치 성도들은 찬양콘서트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통 받고 있을 네팔의 주민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네팔에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모두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6월 3일 : 당진 감리교회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찬양으로 헌신하는 라엘 가수, 국악찬양 나경화 전도사, 채한성 음악감독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시고, 준비부터 끝까지 온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아름다운 나눔하모니를 이룬 후원콘서트였습니다.



6월 7일 : 문경 당포교회

도회지 이주로 어른들만 남은 시골정서상 다른 나라의 어려움의 공감을 갖기가 힘든데 교회와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나눔으로 놀랐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멀리까지 같이 달려가 준 음악감독 채한성님과 가수 조은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잔잔히 밀려오는 감동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6월 10일 : 인천 등대교회

교회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매우 든든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전용대 목사님, 채한성 음악감독님, 나경화 전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천등대교회에서는 200여 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사모하고 네팔을 돕고자 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7월 11일 : 경산 아름다운 교회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채한성 음악감독님, 나경화 전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던 채한성 음악감독님은 찬양 하시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아직 어려울 네팔에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21일 : 전달식

법퍼운동본부를 방문하여 다일공동체에게 네팔지진피해 구호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가졌던 SAVE 네팔 후원집회를 통해 5백만원이 모였는데요, 이 재정은 앞으로 네팔의 재건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다일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은 “네팔의 지진 피해자들에게도 생명의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기

국제푸른나무는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후 두달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에서 후원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체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긴급구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향후 북녘에 긴급구호가 발생하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찬양 사역자들과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럼



이정임 권사, 이춘호 장로
국제푸른나무 후원자, GNH Foundation 대표

그리운 사리원 육아원

제가 2009년 4월에 평양을 처음 방문하고 순안 비행장부터 평양까지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맞아 주어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친근함을 느끼며 호텔에 도착했어요. 다음날 아침 밥사이 보슬비가 내린 평양거리를 내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아마 평생 잊지 못 할 거예요.

이틀 후 사리원 육아원을 가게 되었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고 꼬마들의 재롱(미리 준비된 소수의 아이들)을 보는데 전혀 예상해 보지 않아서 놀랍고 어색 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시키고 무용복과 예복을 입혀 노래와 춤 마술을 했지요.(4-5살)

그리고 2층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 더 어린 아기들(2-3살)이 내복을 입고서 나란히 서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힘을 주며 입을 크게 벌리고 최선을 다 하는지... 노래가 끝난 후 한아기를 안아 주는데 가슴이 찡하더니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간신히 참았어요. 그때 제 귀에 “이 아이들을 도와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이곳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LA로 돌아가 공항에서 남편의 마중을 받고 이 말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이 “YES”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게요.’ 저는 그렇게 했고 남편은 정말 그 즉시 그러자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후원을 시작하여 2015년 올해까지 8번을 오가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똑 같은 순서로 둘러봐요. 330명 이상이 있는 아이들 중에 언제나 준비된 아이들 방 서너 개를 둘러보고, 아기들 안아 보고, 사진 찍으면 끝나 버리는... 짧은 만남은 늘 저를 안타깝게 하고 섭섭하게 했지요.

처음 방문시 아이들의 얼굴에 버짐도 있고 머리에 헌데도 있는 모습을 보고, 2013년 인랜드팀으로 방문했을 때, 만두를 준비해 가서 끓여 먹였어요. 아이들 먹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즐거워 한 기억이 몽글하고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하면서 언제나 준비되고 보던 아이들, 자라서 옮겨가는 아이들, 새로 들어온 낯선 아이들을 제대로 다 안아 보지도 못하고 또 쫓기듯 나오면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육아원 원장의 열심과 열성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신영순 대표님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보람있게 변하는 모습 속에 기쁨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건물 옆에 호텔을 짓고 있기에 ‘저곳에서 묵으면서 아이들 며칠 돌보면 좋을 텐데...’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새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기구와 차량과 무엇보다도 돼지, 오리, 토끼, 사슴도 한 마리! 과일 나무들, 박넝쿨, 각종 야채들(가지, 호박, 무, 배추, 깻잎, 감나무)이 마음을 훈훈하게 하네요. 사육중인 돼지들이 10마리 넘게 새끼를 낳았을 때에는 감격과 감사웃음이 절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푸른나무처럼 싱싱하게 자라날 미래가 있기에...

해외 본부 이야기

Green Tree Charity Foundation USA



국제푸른나무 미국 본부 박광철 목사와
국제푸른나무 서울 본부 김준 사무총장

현재 미국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California) 의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북쪽에 위치한 조이펠로쉽교회 (Joy Fellowship Church) 내에 사무실을 두고, 헌신적인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푸른나무 사역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주로 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국제푸른나무 활동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성도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표어에 맞춰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며 통일되어 한민족이 하나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본부 이야기

경산 지역 본부



국제푸른나무 경산 지부 이주용 목사

7월 11일 경산지역본부가 국제푸른나무의 새식구가 되었습니다.

경산지역본부는 1989년 1월에 경산시 사회단체 1호로 등록되어 활동하던 경산 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회원들이 중년이 되어 자발적인 지역봉사를 원함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네팔자진돗기 성금(5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전문기관답게 미래 통일인재양성과 지역 통일운동의 불을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업 본부 이야기

국제푸른나무 아프리칸 리더쉽



아프리칸 리더쉽 이효근 목사와
국제푸른나무 이사장 곽수광 목사

1. 2015년 7월 14일 아프리칸 리더쉽 지원사업팀이 국제푸른나무 사업본부(지부)로 한가족이 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고 10월 6일에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동행이 아프리카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2. 마다가스카르에 짓고 있는 보건소가 완성되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루어진 보건소입니다. 이제 마을에서 한 분을 선택하여 2년간 훈련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본적인 2주 훈련이 있은 후 보건소는 비로소 문을 열어 마을 사람들의 건강 지도와 간단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제껏 아무도 치료해 주는 이가 없던 1,200여명이 사는 마을의 주민건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 지난주 어린이교회 현지 코디들과 어린이 수백 명이 함께 마을을 청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외침과 함께 어린이들이 마을의 구석구석 쓰레기를 줍고 모아 청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세워져 있지 않은 이 지역에서 이 아이들의 행동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4. 10월 16-18일까지 아버지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카일리처 밖에서 진행했던 아버지 학교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아서 카일리처 내에서 처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감명을 받은 현지분들께서 봉사자로 참여해 주셨고 아버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일리처 지역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원자와의 *Talk*

라운힐 합창단

라운힐합창단이 대구 시민회관에서 약 2,000여명의 관객을 모셔놓고 북녘장애아동 돕기 음악회를 가졌다. 지난번 국제푸른나무와 협약을 맺고 북한의 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합창대회를 가진 것이다. 대구 지역의 유지들과 교회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성대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장애인이 북한 장애인 돕기에 나서다!"

그리고 북녘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라운힐 합창단의 장복광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다.

Q1. 먼저, 라운힐합창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라운힐 합창단은 2012년 11월에 뜻을 같이 하는 장애인 몇 사람이 모여서 노래를 배우고 연습도 하고 있었어요. 라운힐 합창단 이름의 “라운”은 순 우리 고유어로 ‘즐거움’이라는 뜻이며, “힐”은 ‘휠체어(장애인)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라운힐합창단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교파와 종교를 초월하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을 하지요. 지금 등록된 단원은 비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포함해서 187명이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어김없이 50여명이 모여 교제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벌써 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와 장애인의 날 기념



Q2. 국제푸른나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식 참석 및 어울림 한마당 공연 뮤지컬 출연, 노숙자를 위한 성탄 축하 공연,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대합창제 출연 등을 해왔고요. 금년 5월에 중창팀을 만들어 주로 병원을 순회하며 환우들을 위문하였으며, 8월에 하모니카팀을 만들어 초보 연습중입니다.

2015년 9월에는 국제푸른나무와 MOU체결을 했으며 2015년 10월3일(토) 오후7시30분 대구시민회관에서 '북한 장애아동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은 자신들도 힘겹게 살아가면서 '나눔'을 강조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평소 우리 보다 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고 자문했고 북녘의 장애인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형편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자는 심정으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북녘 장애인을 후원 할 수 있는 구호 단체가 국내에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던 중에 국제푸른나무가 북한 장애인 후원 전문 단체라는 걸 알고, 이촌동 사무실을 찾아서 신영순 사모를 만나 자세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Q3. 어떻게 국제푸른나무와 연결되어서 북녘장애아동 돕기 음악회를 열게 되었나요?

국제푸른나무를 소개 받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단기념 음악회를 하면서 그 수익금 전액을 국제푸른나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런데 음악회 전 지금 형편으로 보서는 수익금이 1,000만원에 미달될 것 같아서 무조건 정한 금액을 우선 전하자 마음먹고 경성비에서 부담해서 금액을 맞추어 드렸는데, 음악회 후 정산해 보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Q4. 남북교류가 활발해져서 방북이 가능해지면 라온월 합창단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선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같이 노래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 좀 그렇지만, 제가 금년 봄 아침에 묵상하는 중, 어떤 분은 소떼를 몰고 북한을 갔다 오셨는데 우리는 휠체어를 가지고 북한장애인을 만나러 가는 대장정의 꿈을 꿔고, 평양에서 북한 장애인과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다음날 토요 연습을 마치고 단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단원들 모두가 좋다고 박수를 치며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후에 김준 사무총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북측과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 좀 해 보려고요. 적당한 시기에 합창단에 선포하고 준비해야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Q5. 라온월에게 장애인이란?

라온월 합창단에서 장애인은 처음에는 이웃으로, 친구로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토요일 연습때는 물론이거니와 주중에도 만나 교제하고 지내지요. 어떤 분은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행복하데요.

Q6. 마지막으로 장복광 회장님에게 북녘 장애인들이란?

남한의 장애인들은 지난 날에 비해 복지가 잘 된 편이지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요. 그에 비해 북한 장애인들의 형편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렵게 살아가지 않을까 추측해 봐요. 장애인 인권 문제나 복지 문제 면에서 그들이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남한 정부나 단체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합창단도 미력하나마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북녘의 장애인들을 나의 이웃으로, 형제로 여기면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후원자의 글



NO.

1

북녘의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명을 갖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국제푸른나무.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던 제가 인생의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옆의 힘든 지체들을 만나게 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나눔의 큰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지경을 넓혀 북녘의 아이들과 장애우를 위한 일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북녘 땅에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과 장애우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우 박현정



친조부모의 고향이 북녘인 저로서는 어쩌면 내가 북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정치와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미안하다는 마음도 늘 있던 차에 통일이 되기 전후로 뭔가 북녘 동포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한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북한 장애인들을 운동 선수로 훈련 시켜서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세계의 이목을 끌고 싶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 수억의 인구가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장애인 선수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차츰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어려운 삶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소망이 국제푸른나무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은 종전이후 65년간 북한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 푸른나무를 위해 지지와 응원 그리고 참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스타트레인 트레이너 정주호





찾아가는 통일교육

[찾아가는 통일교육]은 통일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Vikiki English

2014년 11월 12일 금요일에 Vikiki English에서 초등 학교 저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국제푸른나무에서 준비한 북녘 인도적대북지원, 통일이란 주제로 교육을 가졌습니다. 북녘의 모습을 문제로 한 간단한 OX퀴즈와 동영상도 있었고, PPT도 준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간 조립용 종이저금통 안에 통일되면 하고 싶은 것을 그리거나 글을 적었습니다. 또한 Vikiki English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난 후에 Vikiki English에서 아이들이 각자 집으로 가져간 종이 저금통에 모아온 후원금과 Vikiki English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모금해주신 복을 위한 사랑도 같이 전해주어서 더욱 감사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Vikiki English

2015년 6월 26일 금요일에 Vikiki English에서 또 다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녘과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교육이기에 더욱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총 3부로 나뉘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1부는 6-7세 유치부 아이들이었고, 2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3부는 3~4학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북한에 있는 탈 것들] 이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로 시작하여 탈것들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북한의 교통수단을 알려주었습니다. 유치부는 통일 한반도 지도 그리기를 하기도 했고, 초등부는 종이 저금통 안에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Vikiki English에서 잊지 않고 아이들이 종이 저금통에 모은 후원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바퀴달린 그림책

2014년 분당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에서 나눔교육을 가진 것이 인연이 되어 올해도 두번째 나눔교육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바퀴달린그림책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한 권의 동화책을 완성하도록 지도하는 곳입니다. 매년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표현한 작품을 가지고 나눔 전시회를 가지는데 몇 주전부터 그림작품에 인기투표를 진행하고 부모님들도 전시회에 함께 참여하여 나눔교육 당일 분당 센터에는 전시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눔교육은 오전, 오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통일에 대한 의미와 북한 장애인과 아동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나눔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보다 북녘아이들이 우리와 더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종이저금통 나눔 서명을 하고 친구들이 자신과 약속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눔을 알려졌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 작가들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어 어린이들이 가진 재능이 뜻 깊은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도 나눔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국제푸른나무

대구성동교회



5월 10일(일요일), 대구성동교회(담임목사 정용달)에서 국제푸른나무의 홍보대사인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집회 및 후원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 시작 전까지 교회 입구에서 성도님들께 소식을 나누어 드리며 국제푸른나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후에 듣게 될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뿐만 아니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이지선 자매님은 간증을 통해 사고를 만난 과정부터 어떻게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지선 자매님의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길 때문

에 힘을 내서 밥을 먹고 씩씩하게 치료를 받자고 다짐했던 기억과, 괴로웠던 순간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화를 내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았던 순간들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지선 자매님의 재치 있는 입담에 웃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을 통해 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뜻 깊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필요하며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야 한다며 국제푸른나무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을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이지선 자매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오랫동안 마음 속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지선 자매님과 이날 간증 후원 집회를 통해 통일과 북방선교를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신 대구성동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지선 자매님의 말씀처럼 우리 국제푸른나무도 항상 누군가에게 희망과 격려를 나누어주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 업 보 고

2014. 10. 1
~ 2015. 9. 30

2014. 4분기 (10.1 - 12.31)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북측선수단 33명 지원 및 참가 (10/18~10/24)
- 2014 통일부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구시 교육청 공동주관 <청소년 바로 세우기 컨퍼런스> (10/25)
- 북녘어린이 내복선물하기 캠페인 진행 (10/29)
- 2014 푸른나무 소식지 (newsletter) 발행 (11/3)
- 정기총회 (11/25)
- 제12회 민족화해상 수상 (12/9)



2015. 1분기 (1.1 -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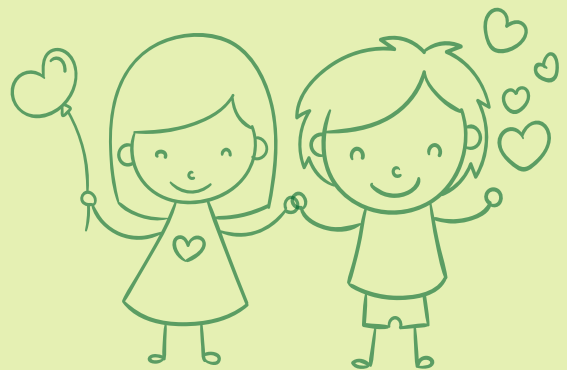
- 2015 국제푸른나무 신년하례식 (1/12)
- 중국베이징주재 조선장애자원아기금 심양지부사무소 방문 (1/31~2/7)
- 사랑광주리(Good Friends International) MOU 협약식 (3/17)
- 2014 회계 재정보고 (3/31)



- 2014년 5차 방북지원 (10/1~10/8)
- 고아, 장애인시설 생필품 및 기타지원
- 평양대동강 건축지원
- 원산농야학교 시설개보수



- 2014년 6차 지원(11/18)
- 조선장애자보호연맹 태양열충전기 19대 지원



2015. 2분기 (4.1 - 6.30)

- 에덴복지회 북한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MOU체결 (4/23)
- 이지선 홍보대사, 대구성동교회 후원집회 (5/10)
- 인도 뱅갈로르 영어동화책 후원물품 전달 (5/13)
- Save Nepal 후원콘서트 진행 (5월)
- 통일부 주최 통일박람회 2015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 홍보부스 운영 (5/29~5/31)
- 주빌리큰기도모임 홍보부스 운영 (6/5)
- Save Nepal (6월)
- 친선대사 및 홍보아티스트 위촉식 (6/22)
- Vikiki 2차 어린이 통일교육 (6/26)



2015. 3분기 (7.1 - 9.30)

- 국제푸른나무 경산지역본부 개소식 (7/11)
- 국제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 사업본부 설립 (7/14)
- Save Nepal “네팔구호기금” 전달식-다일 (7/21)
- 2015년 2차 전국 아크릴 저금통 수거 (7/22~23)
- 말레이시아 해외봉사단 1,2차 사전교육 (8/22, 8/29)
- 말레이시아 “학교짓기” 다음 희망해 시작 (8/26)
- 바퀴달린그림책 어린이작가 후원금전달 및 나눔교육 (8/29)
- 나선지역 홍수피해 긴급구호 및 캠페인 진행 (9/2)
- 여성가족부 지원 “꿈과 사람 속으로” 말레이시아 청소년 해외봉사 진행 (9/5~9/15)
- 대구라온유희합창단 MOU체결 (9/19)



- 2015년 1차 방북지원 (4/3~4/11)
- 고아, 장애인시설 생필품 및 기타지원
- 원산통아학교 식당개보수
- 룡·맹학생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가족지원사업
- 장애인체육공동훈련 지원
- 나무 2만그루 지원

- 2015년 1차 추가방북지원(4/18~4/25)
- 고아, 장애인시설 생필품 및 기타지원



- 2015년 2차 방북지원 (5/19~5/23)
- 맹인지팡이, 보청기 지원
- 체육훈련비용 지원

- 2015년 3차 방북지원 (8/21~8/29)
- 맹인지팡이, 보청기 지원
- 체육훈련비용 지원
- 제3차 대만장애자공택구경기 예선전 참가비, 항공료, 열차비 지원



- 2015년 4차 방북지원(9/6~9/8)
- 나선시홍수피해지원

방북지원 총 \$183,732

후원자명단

2014. 10. 1
~ 2015. 9. 30

개인 (정기/일시)

가병만 강기석 강명기 강명숙 강명진 강명희 강미아 강복원 강성옥 강성호 강술아
강수정 강숙희 강승범 강시에 강양원 강영은 강영화 강예은 강옥수 강유규 강유진
강은신 강은지 강재정 강지숙 강지윤 강지혜 강진주 강철훈 강태우 강태욱 강혜정
강희선 계나영 계선정 고동주 고성근 고수경 고아라 고영진 고윤정 고정하 고현정
고혜경 고희영 공영만 공희송 박수광 박수진 박재은 박형순 박혜덕 광 세 구을량
구진숙 국필원 국혜인 권경윤 권남건 권미남 권보민 권석경 권세정 권소진 권애린
권영희 권예은 권옥순 권영명 권옥원 권은경 권재희 권주희 권지수 권지은
권지연 권하영 권혁주 권혁윤 권효순 금장숙 기범석 기사라 김가영 김가는 김강미
김강은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애 김경호 김경희 김광영 김귀연 김규명
김규용 김근수 김금희 김기석 김기용 김기정 김기화 김난주 김남희 김남정 김누리
김다솔 김다영 김다운 김다윗 김다는 김단비 김대근 김대영 김대욱 김도훈 김도희
김동건 김동석 김동준 김락기 김래미 김명주 김명희 김문정 김문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리 김민선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미진 김미희 김민구 김민석
김민아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용 김병욱 김병하 김병헌 김보경 김보성 김보아
김복경 김부진 김시우엘 김삼순 김삼미 김상우 김상운 김상화 김선헌 김석원 김선경
김선교 김선아 김선에 김선자 김선진 김선화 김설희 김성라 김성민 김성한 김성철
김성원 김성훈 김세미 김세미 김세정 김세정 김세희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 김소희
김수경 김수래 김수봉 김수아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순미 김순자
김솔기 김송옥 김신규 김신애 김선영 김신옥 김신혜 김아름 김아영 김안나 김안나
김아진 김여울 김연서 김연설 김연숙 김연아 김 영 김영연 김영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자 김영주 김영진 김영연 김영혜 김영호 김예성 김예원 김예은 김예인
김완중 김요셉 김요한 김용운 김용중 김유미 김유미 김유준 김유진 김윤경 김윤아
김윤우 김윤자 김윤정 김윤주 김윤희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 김은심 김은영 김은영
김은지 김은진 김은진 김안선 김안선 김안숙 김안숙 김안숙 김안숙 김안숙 김자숙
김자영 김잔디 김장숙 김재민 김재욱 김재은 김재운 김재희 김정규 김정민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일 김정희 김정훈 김제운 김종무 김종수 김종신 김종열
김종철 김종철 김주생 김주아 김주연 김 준 김준태 김준훈 김지선 김지성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연 김지연 김지혜 김지효
김지훈 김지희 김진경 김진동 김진숙 김진용 김진주 김진원 김찬우 김찬옥 김찬현
김찬홍 김창근 김창복 김창성 김창희 김철환 김태근 김태성 김태우 김태웅 김태현
김태호 김하림 김학범 김학중 김한나 김한나 김한태 김현숙 김현숙 김현식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옥 김현자 김현주 김현주 김형근 김형은 김혜경 김혜미 김혜선
김혜선 김혜숙 김혜연 김혜옥 김혜진 김혜진 김환석 김환진 김효정 김훈식 김흥기
김희목 나경옥 나수진 나오연 나혜민 남강우 남성정 남호정 남화정 노남순 노민영
노선영 노아름 노영석 노윤지 노은경 노준미 노태성 류문용 류길남 류명자 류세은
류수연 류재운 류창식 마영자 명현진 모성원 문남식 문상영 문숙희 문영주 문장혁
문정희 문주선 문주영 문지원 문현준 문혜자 민경진 민병희 민정숙 민지선 민 하
박경원 박경자 박경화 박경희 박광희 박나은 박다하 박대웅 박대철 박대원 박도영
박동수 박동운 박두진 박두태 박리라 박만중 박만호 박우부 박미경 박미경 박미선
박미연 박미향 박민하 박병관 박병우 박병주 박보라 박상선 박상연 박상준 박상철
박상철 박선영 박선희 박성오 박성용 박성주 박소라 박소라 박수지 박수진 박수진
박순실 박순희 박숙선 박시윤 박신희 박근금 박영금 박영진 박영철 박은유 박용진
박용진 박원기 박은미 박은미 박은민 박은숙 박은주 박은혜 박재숙 박재용 박재현

박정아 박정아 박정오 박정운 박정환 박종국 박종미 박종선 박주한 박주현 박주희
박주희 박준수 박준원 박지영 박지원 박지연 박지훈 박진경 박철용 박춘금 박춘철
박태길 박병화 박헌영 박헌정 박현화 박형길 박형숙 박형진 박혜연 박환희 박희원
방은영 방충선 방충애 배명자 배미연 배서영 배석순 배영주 배예은 배요한 배유나
배장민 배재욱 배지연 배창운 배희라 백미화 백은미 백은혜 백춘찬 백지연 백지운
백홍필 변진수 봉동근 사세진 서경득 서 광 서문석 서미영 서미혜 서보연 서상원
서영미 서유진 서은아 서은혜 서정숙 서정현 서정훈 서주희 서혜신 석명봉 설인권
성기향 성승환 성시현 성하준 소리나 손광옥 손명숙 손미라 손병식 손세은 손세이
손소정 손아라 손영호 손옥자 손은경 손은미 손정민 손주원 손찬우 손하민
손홍연 송경설 송경아 송근수 송기철 송대연 송대원 송도식 송명희 송송이 송영금
송영은 송윤재 송은솔 송은지 송은지 송정설 송지현 송지혜 송진영 송현주 순혜란
신강섭 신경운 신경희 신동관 신미영 신 민 신보라 신상호 신성규 신영순 신용협
신은영 신은정 신일선 신정란 신종훈 신지수 신지원 신지윤 신지혜 신찬양 신창남
신해봉 신혜정 심경섭 심범준 심상민 심숙자 심승보 심원희 심재현 심 정 심정수
심태경 심현보 심현화 심희숙 안만호 안미연 안병재 안보람 안성환 안송희 안영재
안영희 안예선 안요한 안우찬 안재열 안종범 안지현 안현정 안희원 양경숙 양경천
양병덕 양순석 양영아 양영록 양인성 양지윤 양지은 양지는 양지은 양지연 양진희 양현중
양해민 엄경숙 여상기 여석수 여임숙 여종진 연정현 염규란 염영숙 오기쁨 오로라
오병호 오상우 오수정 오순남 오승호 오요시 오은정 오정현 오주상 오 현 옥혜경
왕금란 우수규 우지희 우진규 우하진 원고는 원나리 원대희 원아름 원유민 원지희
유광희 유나리 유명준 유미정 유미화 유병선 유세빛나 유성희 유영민 유영옥 유영준
유옥숙 유원경 유은선 유인아 유일한 유정순 유정현 유정환 유지는 유지인 유태원
유하나 유혜준 유혜랑 유효진 유희덕 육지현 육혜란 윤경애 윤규희 윤달삼 윤민경
윤보라 윤분여 윤석화 윤세정 윤소민 윤소연 윤소정 윤순복 윤승연 윤아란 윤영관
윤예록 윤윤희 윤용진 윤은선 윤일로 윤지영 윤지은 윤지혜 윤창복 윤창수 윤철순
윤춘옥 윤필보 윤혜린 윤혜원 윤화미 윤희선 윤희재 은성기 이가영 이가는 이강선
이경민 이경아 이경진 이경화 이경환 이경호 이경희 이계림 이공태 이광재 이광호
이국희 이귀우 이규영 이규일 이규진 이금순 이나미 이나미 이다정 이대훈 이대기
이도균 이동길 이동선 이동순 이두연 이리미 이명순 이명순 이모세 이무희 이문경
이문희 이미경 이미선 이마숙 이마지 이마진 이만희 이배배사 이병기 이병우 이보람
이보람 이보영 이보영 이복희 이삼미 이상민 이상순 이상우 이상훈 이서경 이서연
이서연 이선민 이선한 이선혜 이성실 이성재 이성현 이세연 이소망 이소연 이소정
이손영 이수연 이수지 이수진 이수혁 이수현 이순복 이승미 이승원 이승찬 이승철
이승현 이시은 이신임 이아침 이애린 이양순 이애스티 이연경 이연식 이연용 이연주
이연준 이영숙 이영순 이영일 이영주 이영준 이영택 이영화 이영희 이예은 이연주
이연준 이영숙 이영순 이영일 이영주 이영준 이영택 이영화 이영희 이예은 이예진
이예진 이예운 이옥분 이옥석 이외순 이요섭 이요섭 이용보 이용우 이용희 이우윤
이원석 이원재 이원정 이원호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이 이윤정 이윤주 이은경 이은나 이은미 이은미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은혜
이은혜 이익재 이인석 이인수 이인숙 이인숙 이인준 이일설 이임숙 이재숙 이재운
이재원 이정권 이정미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애 이정열 이정옥 이정은 이정은
이정훈 이정희 이종규 이종덕 이종순 이종예 이종호 이주나 이주란 이주리 이주연
이주혜 이준우 이준호 이종원 이이나 이이선 이이영 이이영 이이영 이이원 이이원

이지해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지희 이진나 이진로 이진명 이진선 이진선 이진아
 이진주 이진호 이찬욱 이창록 이철호 이춘욱 이춘우 이춘원 이태석 이태영 이택기
 이필선 이필승 이한근 이해성 이해주 이항화 이현구 이현경 이현미 이현숙 이현욱
 이현정 이현진 이 형 이형은 이형훈 이혜경 이혜인 이혜자 이호건 이호숙 이호영
 이호정 이호정 이호주 이화선 이화선 이환수 이후남 이희영 인세은 임강진 임경아
 임경희 임규리 임노아 임다은 임미영 임보람 임서연 임서진 임성아 임성주 임영림
 임영희 임예진 임용숙 임은희 임자현 임정애 임종화 임지수 임지주 임지희 임민진
 임창민 임필선 임현선 임현섭 임영경 임휘재 임희정 장미리 장미은 장미희 장민창
 장보름 장보연 장부교 장성주 장소영 장수창 장숙영 장순례 장슬비 장승희 장예라
 장예람 장예림 장우혜 장유식 장유진 장유진 장윤석 장윤임 장은옥 장은진 장은혜
 장은희 장정원 장주혜 장진석 장진영 장진주 장태봉 장만나 장현봉 장현정 장혜경
 장혜원 장혜주 장혜진 장호준 전동현 전미연 전세철 전소현 전수미 전영재 전영주
 전우정 전우진 전 윤 전은주 전은혜 전재덕 전재현 전준환 전지아 전해영 전환수
 정가원 정경권 정경민 정경순 정경진 정경자 정고은 정공주 정규철 정근모 정기영
 정기욱 정다운 정대문 정모숙 정미경 정미옥 정미희 정보미 정상호 정선미 정선영
 정선용 정선진 정선희 정성순 정성영 정수진 정수진 정수희 정아름 정여진 정연필
 정연화 정용근 정유강 정유평 정윤선 정윤주 정은연 정은주 정은하 정은혜 정의석
 정의진 정인선 정인숙 정일희 정재동 정재영 정재현 정재훈 정주리 정주희 정지선
 정지영 정지는 정지현 정진임 정진희 정찬우 정학경 정해복 정현덕 정현호 정현정
 정현주 정현철 정혜초 정혜은 정혜인 정혜진 정효선 정휘진 정희정 정희현 조갑동
 조경순 조규백 조미경 조미라 조민영 조분진 조성근 조성래 조숙희 조순희 조송희

조아름 조아영 조아영 조영완 조영진 조은영 조원일 조윤희 조은비 조인성 조재숙
 조차성 조천일 조학래 조한영 조항숙 조현진 조현미 조현진 조혜숙 조혜옥 조혜정
 조혜진 조희주 조희진 주경열 주미경 주봉영 주윤희 주은주 주은지 주정숙 지두철
 지 연 지은파 지인희 지한비 진경희 진달래 진수정 진슬기 진영현 진찬민 차가람
 차인경 차진주 채민지 채빛나 채석민 채송아 채유순 채은화 채진아 채희병 채희선
 천권옥 천지영 천혜미 최경식 최광호 최규순 최금하 최다은 최단비 최덧솔 최두영
 최명희 최미나 최미진 최미하 최민아 최민주 최법섭 최병선 최병은 최보배 최보영
 최복순 최복화 최상호 최서정 최선영 최성민 최성수 최성은 최성혁 최세진 최소망
 최소영 최수연 최수정 최수진 최순희 최승원 최아름 최양희 최영순 최영희 최예린
 최완식 최유빈 최윤주 최윤지 최은성 최인호 최재경 최재환 최정임 최창하 최정희
 최 준 최준원 최지나 최지예 최지원 최진영 최진호 최창민 최충실 최태주 최한나
 최항기 최현아 최혜경 최혜옥 최혜원 최혜자 최혜정 최혜진 최훈규 최희경 최희선
 추명선 추수미 추수진 추진성 추한규 탁윤주 태승원 익 명 하길호 하미르 하상빈
 하세례 하연정 하영민 하유진 하지성 한건호 한규현 한규현 한기봉 한명환 한민규
 한 빛 한선규 한선미 한수정 한숙자 한승미 한아영 한아영 한완석 한은지 한장현
 한종훈 한주애 한지는 한진성 한현수 한현진 한혜영 한혜정 함태식 함향자 함호숙
 허기쁨 허남용 허미정 허수영 허수진 허영미 허준영 허준영 허지옥 허태연 허태희
 허한나 허혜수 현은성 현지선 현남식 홍경의 홍경자 홍대원 홍미봉 홍미영 홍민희
 홍상호 홍석용 홍성길 홍성숙 홍성은 홍승균 홍영실 홍은아 홍의선 이은경 홍지영
 홍지는 홍찬희 홍하연 황경숙 황미리 황선민 황성진 황수진 황수진 황영옥 황윤미
 황윤정 황은산 황은지 황은혜 황인숙 황인영 황지혜 황찬용 황해선 황현조

기업/단체 후원

(재)성주재단
 (주)문학동네
 (주)아모레퍼시픽
 (주)유니버설
 (주)유엔티기획
 (주)이스트콘스크리아
 (주)제일철강
 (주)하은메디스
 (주)한록물산
 (주)효애진
 (주)희망사업단
 100주년기념교회
 CBMC 인헌 꿈나눔교회
 G&H FOUNDATION
 GREENTREEUSA본부
 ISC SKKU교회
 K.NET
 KOREANISCHEEVANGELISCHE
 MCM매장 티름커피숍
 MCM본사 직원커피숍 카페본
 WON FOUNDATION
 가구마트
 개봉성결교회유년부
 거룩한빛광성교회 통일성교회
 거룩한빛함은샘광천교회
 경북교회
 경산지역본부

경인노회
 광고기주총교회
 광영교회
 광야교회
 광양교회
 광염드림교회
 국민은행 강남대로점
 국민은행이촌지점
 기독교대한감리
 기독교대한감리회 당진교회
 꿈이있는 교회
 꿈이있는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강남교회
 다예교회
 대구광영교회
 대구새누리교회
 대구성동교회
 대아틀(주)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광명
 더크로스처치
 동강
 두레주르 (예산)
 맥가이버카센터 (예산)
 문경당포교회
 문곡16형대추말한의원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바퀴달린그림책
 백석점커반
 보스턴한인교회
 본누벨 과자점
 분당그리스도의교회
 분당우리교회
 비키키 잉글리시
 사단법인 기운차림봉사단
 사회복지법인 밀알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서울동남노회 남북한통일선교위원회
 서울영동교회
 선한목자교회
 세상의 빛 교회 (초지원제일교회)
 수라채 식당(예산)
 순복음물댄동산교회
 스타트레인
 신부산교회청소년부
 신한은행독산남지점
 아름다운교회
 아웃리치 파운데이션
 아진산업(주)
 애터미(주)
 에젤선교회
 연제고등학교 S.F.C

염산교회
 영은교회
 예산압구정김밥
 예산장로교회
 예수사랑교회대전
 예전침례교회(여선교회)
 우림교회
 월드휴먼브리지
 월평동산교회
 익산부승동밀타임온누리공동
 인랜드교회 USA
 일백백지재단
 일산예수교회
 일산호수교회
 재단법인 드리미 재단
 정법영(청주예향교회)
 좋은사람들
 주사랑교회
 주관교회
 지구촌교회
 코기코기
 푸른나무교회
 푸른나무카페
 한나기도회
 홍공한인교회
 화본교회



베들레헴 플랜 (Bethlehem Plan)

북녘 장애인, 어린이
시설에 한 개의 베들레헴
(떡집-온실) 지어주기



필요성

1. 수년간 가뭄으로 인한
식량감소
2. 아동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을 감소

온실건설

1. 약 200평 온실 1동
(100m X 7m = 211평)
2. 한 개 기관 = 한 개 온실

온실활용

1. 춘궁기 식량대체 작물 생산
2. 봄, 여름 대체 식량 조기 생산
3. 춘궁기 단축효과

계획 및 준비

추진일정

7개월

평가 및 결과보고

온실 시공

현지 사전조사

물품 수송 및 배치

[후원계좌]

387237-07-002768
국민은행,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사무국 연락처
02. 3482. 2000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여러분의 사랑과 용기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	--	--	--	--

받는 사람

국제푸른나무 후원관리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3층 303호

04422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말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 신청시 기입해주세요
휴대폰 (전화번호)	
E-mail	
주소	

약정금액	매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만원
이체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국제푸른나무에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후원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해 본인이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국제푸른나무로 지정 출금일에 출금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출금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제푸른나무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금융기관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며 상기 후원금을 CMS 자동이체 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및 기업후원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

Christmas G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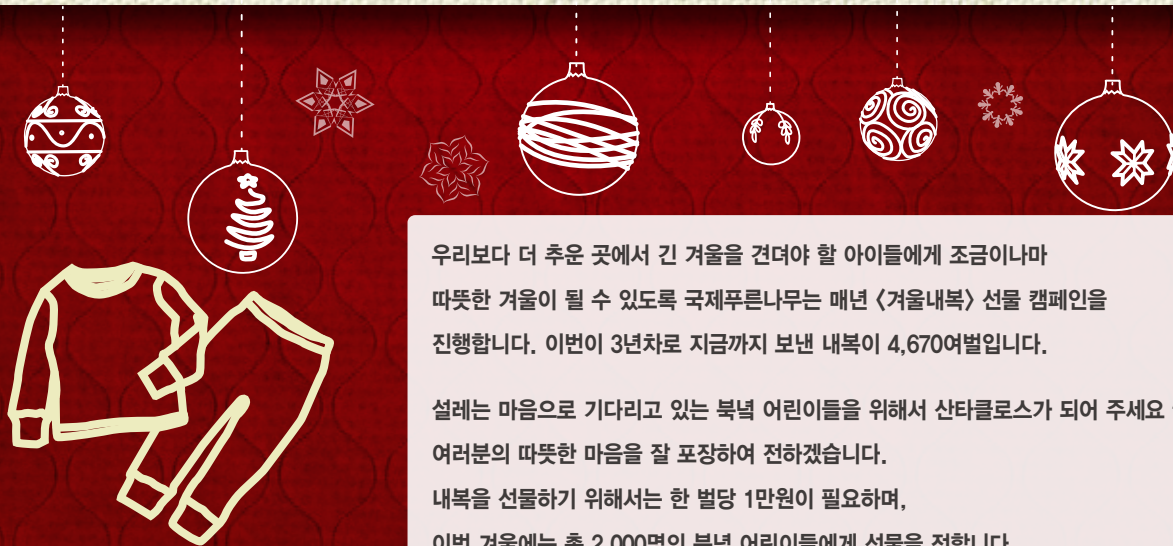
〈북녘 아이들에게 내복 선물하기〉

+5°C의 사랑 내복 보내기



작년,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내복을 입은 북녘 아이들

모금기간: 1차 - 11월 1일 ~ 12월 25일 / 2차 - 12월 26일 ~ 1월 31일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긴 겨울을 견뎌야 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국제푸른나무는 매년 〈겨울내복〉 선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이 3년차로 지금까지 보낸 내복이 4,670여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서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세요 ^^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잘 포장하여 전하겠습니다.

내복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한 벌당 1만원이 필요하며, 이번 겨울에는 총 2,000명의 북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ARS후원전화: 060-700-1333

ARS후원전화 한통으로 1건당 5천원씩 후원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은 여러 건의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계좌: 국민 760737-04-007453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 ▶ 문의 02-3482-2000
-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eentreekorea
- ▶ 카카오톡ID: greentreekorea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디스크! 협착증!

내시경으로 보고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한다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 모습]

척추질환, 꼭 수술해야 할까요?

수술 그리고 절개와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척추질환, 꼭 수술해야 할까요?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척추질환도 직경 1~2mm의 내시경을 통해 눈으로 보면서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입니다.

“비수술로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시에”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은 꼬리뼈를 통해 내시경레이저카테터(가느다란)를 척추의 통증 부위에 삽입, 내시경을 이용해 터져나온 디스크나 신경이 유착된 부위를 찾고 레이저로 통증의 원인물질을 제거해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시켜 좁은 물론 약물로 염증을 치료해 줍니다.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신경근 주위의 유착까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나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신경과 관절이 손상되면서 염증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찌꺼기(유착)로 남아 척추신경과 척추관이 들어불게 되면서 만성적인 허리통증과 다리가 저리고 시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와 신경관이 좁아진 정도도 중요하지만 신경 주변의 염증과 유착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제거해주는냐 역시 척추질환 치료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은 디스크와 협착증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발한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통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요통이나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에도 적용 가능한 시술법입니다.

짧은 시술과 빠른 회복을 지향합니다.

시술은 국소마취로 이루어지고 회복시 통증도 적을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특히 20~30분 정도의 짧은 시술 후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1~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일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가능해 수술 치료를 꺼리거나 수술이 곤란해서 고통을 참아야 했던 환자분들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단, 재발이나 감염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대화하며 치료”

시술은 내시경을 통해 직접 보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므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대화하며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가며 이루어집니다. 참포도나무병원은 또 아침 컨퍼런스를

통해 시술할 환자분들의 증상과 연령, 병변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이 적합한 치료로 될 것인가를 회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진료과 원장들의 시술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흔히 디스크나 협착증을 진단받게 되면 누구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죠. 그러나 실제로 전체 척추질환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팔, 다리의 마비나 대, 소변 조절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참기보다 병원을 찾아 정밀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할수록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더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참지 마시고 고질적인 허리통증을 겪고 있다면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유효기간 2015.3.9 ~ 2019.3.8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의료서비스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인증

• 참포도나무병원은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를 통하여 복벽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척추·관절의 참 좋은 친구
참포도나무병원

양재역 8번 출구(3호선 신분당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7
www.champodonamu.com

· 문의 및 예약 ·

1588-0831